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공인노무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

들어가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기업에서는 이 같은 변화를 생산관리 측면에서 고려하고 있으나, 안전보건관리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을 안전보건관리에 적절히 활용할 경우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 디지털 기술이 구축됐을 때의 긍정적 효과와 고려해야 할 지점들을 살펴본다.

상시적 의사소통채널 구축

오프라인 회의 구조는 대면 소통을 통해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그 특성상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결정이 현장에 도달하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갑자기 발생하는 현장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대처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의사결정권자, 현장 관리자, 현장 노동자 간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채널 구축이 가능하다. 이 경우, 현장의 상황을 의사결정권자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갑자기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에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다. 물론, 대면 소통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오프라인 시스템과 온라인 시스템을 적절히 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해·위험정보의 공유 기반 구축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가 자신이 다루는 기계, 원료 등에 대한 유해·위험정보를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보가 대부분 문서의 형태로 사무실에 보관된 경우가 많아 실제 작업 과정에서 참고하기가 어렵다. 또한 내용이 많고 복잡하여 현장 노동자가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실제 작업 과정에서 활용하기가 어렵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유해·위험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현장 별로 참고, 활용해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하여 편하게 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현장 노동자는 작업 현장별로 실시간으로 그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유해·위험정보는 사무실 책상에서 나와 현장에서 살아 숨 쉬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의 중요한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안전보건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교육 내용이 형식적이고 교육 방식도 강사의 일방향적인 강의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 교육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교육 내용과 실제 현장 상황은 상이하므로, 좋은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현장 노동자가 교육받은 내용을 실제 작업에 적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디지털 기술을 안전보건교육에 접목할 경우, VR 체험 교육 등을 통해 실제 현장을 반영한 교육을 할 수 있고, 노동자가 직접 참여하는 교육도 가능해진다. 또한 유해·위험 상황에 대한 대응 교육의 경우, 노동자가 위험 부담 없이

사전에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신속한 작업중지 시스템 구축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노동자의 작업중지 권리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 노동자가 산재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을 인지하더라도, 그 판단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작업중지 이후의 불이익이 두려워 작업중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사업주가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서 작업중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할 경우, 의사결정권자가 현장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구축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사결정권자가 빠르게 작업중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현장 노동자 역시 큰 부담 없이 작업중지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노동자 감시 이슈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노사가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